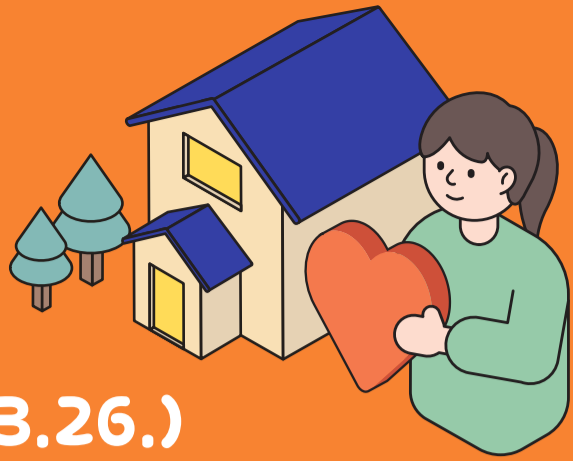


돌봄과 고립의 무게,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

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(3.26.)

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루거나,
고립과 은둔으로 일상이 멈춘 아동과 청년을
보다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
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됩니다.



1 지역사회 모두 함께 위기아동·청년을 발굴합니다

- 위기아동·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,
유관기관*에서 **청년미래센터**¹⁾로 지원을 요청합니다. <위기아동청년법 10조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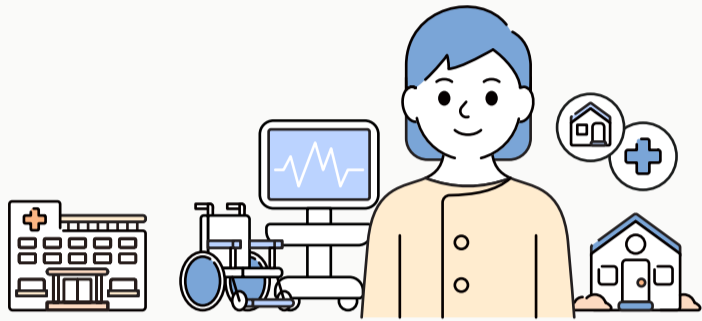


1) 청년미래센터: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·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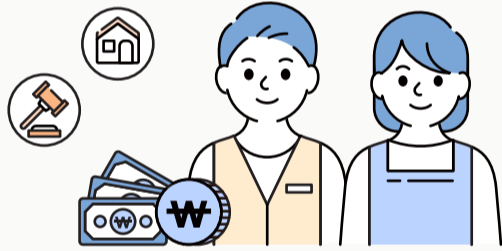
2 초기 상담 후 돌봄·고립·위기 상황에 맞는 밀착 맞춤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

가족돌봄아동·청년¹⁾

(아픈 가족에게는)
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률 5%p 할인,
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가능



(청년 본인에게는)
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³⁾,
자활사업 참가 유예
일자리·교육·주거·금융·법률⁴⁾ 등
필요한 서비스 연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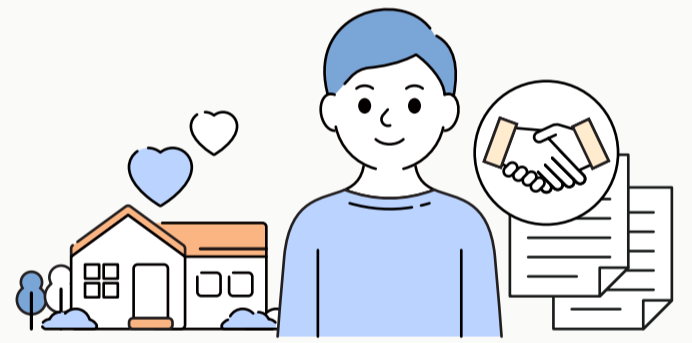
고립은둔아동·청년²⁾

온라인 자가 진단, 초기 상담을 거쳐
 고립 정도에 따라
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제안

→ 일정 수준 회복 후
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
프로그램 & 고용센터 연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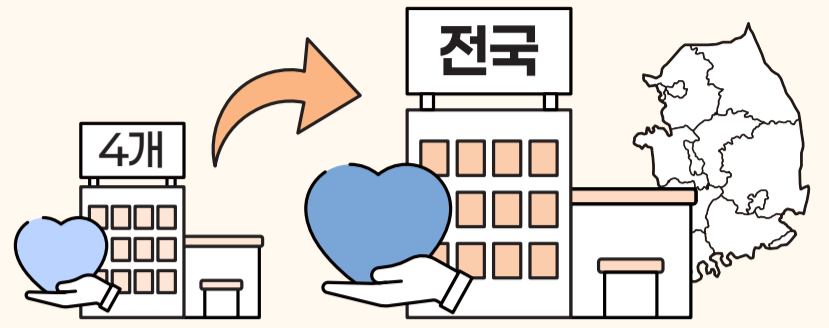
공동생활가정,
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
사회 복귀 지원



- 1) **가족돌봄아동·청년**: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·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
 - 12세 이하는 드림스타트에서, 13세~34세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 지원
- 2) **고립·은둔 아동·청년**: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
 - 9세~18세 고립·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,
 19세~34세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 지원
- 3) 학업, 취미, 건강관리 등 자기 삶의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바우처로 운영(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지원, 1인가구 기준 256만4238원)
- 4) <서비스 지원 예시>

취업	교육	주거	금융	법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• 청년성장 프로젝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 국가장학금 • 민간단체 장학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민금융지원사업 •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사회 변호사회 • 마을변호사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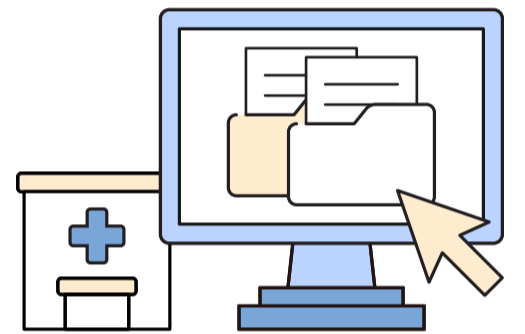
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4개 시·도¹⁾에서 **위기아동·청년 지원 시범사업**을 추진해 왔으며, **청년미래센터**를 **전국**으로 신속히 **확대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3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이 더 쉽게 신청하고,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넓혀갑니다

· 시범사업 지역¹⁾에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**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(mohw2030.co.kr)**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· 읍·면·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**청년미래센터 한 곳에서** 상담부터 필요한 지원 서비스들을 연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

1) 인천, 울산, 충북, 전북

